

# 열정, 그리고 방랑... 철학과 대중의 '경계' 뛰어넘기

### 컬처 & 피플

#### 철학자 이주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삶은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단편일 수도, 또 어떤 사람은 장편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다.”

철학자 이주향(51) 수원대 교수가 정의하는 삶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삶이라는 것. 이 교수의 말은 지금까지 정의된 그 어떤 삶에 대한 명제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했다.

“독일의 헤르만 헷세는 방향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은 작가다.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끊임없이 낭만을 추구했다. 원초적 그리움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평생 헷세를 ‘방랑자’로 살게 했다. 방랑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었을 거다.”

헤르만 헷세를 좋아하는 이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문학적 취향이나, 역동적인 삶 때문일 수도.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는 방랑자 기질에 반해서 일 수도 있다. 아마도 이 교수 또한 그러한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을 터이다.

“나는 방랑자가 아니라 방랑자적 기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서 보듯, 그녀는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는 철학자였다. 수공이 가는 대목이다. 방랑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니 철학교수가 되었지, 방랑을 실행하는 이었으면 예술가가 되었을지 모른다.

최근에 이 교수를 수원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났다. 늦가을의 정취가 물든 교정은 생동감보다는 쓸쓸한 낭만이 감돌았다. 계절이 주는 매력이었다.

그동안 이 교수는 적지 않은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사랑이 내게로 왔다’, ‘이주향의

### 삶이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

#### 단편이나 장편이냐는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 달려

치유하는 책임기’, ‘나는 만화에서 철학을 본다’, ‘그림 너머 그대에게’... 기존의 관습과 차별화되는 저작들은 독자들에게 이주향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다. 철학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철학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철학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사실 책 읽어주는 교수로 알려진 그녀는 일반인에게 꽤 많이 알려진 철학자다. 철학자가 시민과 친숙하다는 것은 ‘젠 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다.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는 그렇듯 ‘경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누가 누가 잘하나’에만 관심이 있다. 성과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우상이다. 그러나 21세기 다문화, 다변화 사회에서 그런 교육은 더 이상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그 일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혹수’가 필요하다.”

이 교수의 말은 혹여 ‘동굴’ 속에 갇혀 있다 해도 독하게 ‘방랑’을 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마치 헤르만 헷세가 나름의 방랑적 성향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연 것처럼. 원래 그녀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읽고 그림, 선악을 구분하는 학문은 그녀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탓에 그녀는 사물과 현상의 배경을 탐색하는 일에 흥미를 느꼈다. 일상화된 철학적 사유는 자연스레 그쪽

으로의 방향 전환을 강제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니체와 키에르케고르, 심리학자 융을 좋아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에 대해 저항적이었고 나를 객관화하는데 다소 서툴렀다. 그러나 이즈음에 이들 책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면들을 보게 된다. 융은 여전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철학자다. 생을 정리하면서 그는 자기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실현의 역사였다고 고백하지 않던가.”

평소에 이 교수는 산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대학 다닐 때 독서 외에 유일한 취미가 등산이었다. 일상에 지치거나 힘들 때면 어김없이 산을 찾곤 했다.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전국의 산을 유람했다. 서울의 남산부터 설악산, 지리산, 무등산, 가야산, 계룡산..

그녀는 산만큼이나 책도 좋아한다. 그렇다고 책을 소유하고 수집하는데 집착하지는 않는다. 가급적 들어오는 책은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려 한다. “좋은 책이 내 손을 떠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한다면 더 없이 기쁘다.”

요즘 그녀는 108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발목 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잠시 등산을 중단하고 108배를 한다. 반복해서 절을 하다보면 뱃심이 생긴다. 뱃심이 생겨야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직관도 생긴다. ‘혹수’로 상징되는 내면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앞으로도 독서와 등산, 명상을 하며 내면을 응시하고 살피우는 삶을 살고 싶다. 이를 ‘주향(柱香)’처럼 중심의 향기를 발하는, 삶의 고단함마저 은은한 향기로 바꾸는 생을 살고 싶다.”

/수원=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김진기기자 jeans@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데

‘영혼의 집’, ‘운명의 딸’로 잘 알려진 이사벨 아옌데는 칠레 출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 198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 온 그녀는 동네서점 ‘북페이지’ (The Book Passage)를 만나기 전까지 낯선 타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어느날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페이지를 발견하면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서점 주인인 일레이 페르로 셀리 부부는 먼 나라에서 온 작가를 이웃으로 맞아 주었고 마음의 위안을 얻은 그녀는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독자와 대화를 나눴다. 지독한 향수병에 시달릴 때나 말을

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9년 인터넷 서점 ‘에스24’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5000개를 헤아렸던 전국의 서점 수는 지난해 1625곳으로 급감했다. 동네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을 때 정가보다 25~30% 싸게 받지만 인터넷 서점은 대량 구매 덕분에 훨씬 저렴하게 구입해 가격경쟁력이 앞설 수밖에 없다. 수십 여년 간 광주시민들과 동고동락했던 ‘나라서적’과 ‘삼복서점’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새 도서정가제는 이런 동네서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내 마음속의 책방

읽었을 때 미국을 떠나고 싶었지만 ‘정든 책방’을 잃는 게 두려워 생각을 접었다.

최근 서점가에 나온 ‘나의 아름다운 책방’ (로날드 라이스 엮음)의 일부본이다. 책은 이사벨 아옌데, 존 그리삼, 척 팔라닉 등 미국의 대표 작가 84명이 써내려간 ‘내 인생의 작은 서점’ 이야기다. 글쓰기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서점과 그곳에서 어떤 위안과 영감을 얻었는지에 대해 들려준다. 이들에게 있어 동네책방은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 같은 곳이자 ‘늘 설레게 하는 첫사랑’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동네서점들도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래전 상영된 영화 ‘유브 갓 메일’ (You’ve Got Mail)의 소박한 ‘모퉁이 서점’처럼 아마존닷컴, 반즈앤 노블 등 대형서점의 공세에 밀려 하나씩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책방들이 몰락하는 이유중 하나는 온라인 서점이 주도하는 가격 할인경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우

종전에 19%까지 가능하던 도서 할인율을 15%로 줄이는 등 사실상 모든 책에 정가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 시행 첫 날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중·소형 서점 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 시행만으로 고객들을 동네서점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출판계의 전망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한 도서정가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억 속으로 사라졌던 동네서점들을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책 읽는 문화가 먼저 확산되어야 한다. 혹여 한동안 책방에 가 본적이 없다면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잠시 들러보자. 이 책 저 책 뒤적여 보면 잊고 지냈던 삶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

〈편지부국장·문화선임기자〉

## 광주문화재단, ‘동지팔죽 만들기’ 참여 가족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동지절을 맞아 ‘제4회 우리가족 세시풍속 전통음식체험’ 동지팔죽 만들기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체험 행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전통음식체험 전수실에서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남도리래음식장 17호 최영자 선생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2일부터 11일까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방문 및 전화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8팀(한 팀당 2~4명 지원 가능)을 선정한다.

한편 ‘우리가족 세시풍속 전통음식체험’행사는 단오, 칠석, 유두, 동지 등 올해 4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문의 062-232-15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방배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